

양돈업계의 변화에 현명한 양돈인이 되자



조진형
(본회 부회장)

전국 양돈인 여러분!

먼저 지면으로 접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돈가하락으로 무더위를 가중시켰던 잊혀지지 않을 1989년의 여름도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양돈불황 타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낙후되었던 양돈산업을 현 위치까지 발전시켜 놓는데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많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국가경제의 부흥과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되어가는 중에 우리 양돈산업은 물량면에서 3배 정도의 증가와 생산성 면에서 50% 정도의 향상으로 양돈산업인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의 영향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의하여 우리 양돈인에게 큰 불황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진로 설정과 추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수입쇠고기를 저가 판매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소비증가 둔화는 물론 금년들어 정국의 혼란과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전산업의 수출증가 둔화, 공장 가동을 감소로 인한 돼지고기소비 감퇴 등 불황은 장기화 될 조짐입니다.

이제와서 개방압력에 밀려 외국에 시장을
잠식당한다고 생각할때 우리 양돈인의
설자리는 명약관화(明若觀火) 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협회를 통한 정보교환에 신속을
기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체질개선과
방향설정을 가속화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대한 견제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돈육을 일본에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수출채산성의 악화로 순탄하지 못하며, 반면에 돈육통조림의 수입 개방에서 소시지까지 수입개방이 되어 대일수출량 못지 않은 양의 돈육이 수입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의 수입자유화도 머지않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근자 우리는 각계에서 대일 돈육수출로서 불황을 타개해야 하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정책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비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비가 생체 1kg당 1,100원, 대만은 924원, 덴마크는 927원, 미국은 567원으로서 20% 정도의 생산비 저하를 시켜야 국제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우리 양돈은 규모면에서 전문화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품종개량은 물론 사육체계 개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양돈장에서 타인력 이용이 불가능해 질 것을 대비하여 사육시스템의 자동화와 전문학식을 갖춘 농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대일 수출은 고사하고 우리 시장자체를 잠식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생산조절로서 내수시장의 가격안정은 수입개방의 가속화만 초래할지도 모르며 대책은 못됩니다.

둘째로 정부에서는 사료원료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산옥수수이 이중곡가제 부담을 축산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의 개선과 다각적인 정책의 뒷받침을 통해 축산물의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서만이 국제화 시대에 즈음한 양돈산업의 안정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돈산업은 지난 20여년동안 어느 산업분야 못지않게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와서 개방압력에 밀려 외국에 시장을 잠식당한다고 생각할때 우리 양돈인의 설자리는 명약관화(明若觀火)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양돈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뭉치고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특히 협회를 통한 정보교환에 신속을 기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체질개선과 방향설정을 가속화 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대한 견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양돈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길은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고, 소외계층과 힘을 합쳐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돈업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현명한 양돈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